

學會活動을回顧하며



黃煥文*

(大韓電氣學會 會長)

친애하는會員여러분 지난 2년간 여러모로 보살펴 주시고 聲援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感謝드리오며, 밝아오는 癸酉년 새해를 맞이하여 會員여러분의 家庭에 항상 幸運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그간 會員여러분의 學會發展을 위한 적극적인 協助로 本人이 1991 / 1992年度 大韓電氣學會 會長의 責務를 大過없이 마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感謝드립니다.

就任初 本人이 “活性化된 學會像의 具現”을 내세우며 우리나라의 技術科學振興에 있어서 우리學會의 責務와 會員여러분의 役割이 어느때 보다 重且大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產業界, 學界, 研究所의 여러분이 항상 다함께 參與하여 技術開發의 情報交換과 技術調查研究에 대한 활발한 토의를 하여 주신 바, 學術活動의 活性化에 커다란 進展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되어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는 오로지 會員여러분의 自矜心과 熱과 誠을 다 하여 學會事業에 힘써주신 任員 및 特別會員社 關係者 여러분의 뚜렷한 使命感의 發露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本人이 우리 電氣學會와의 인연을 맺은 것은 1960년대에 부산에서 최초로 學會支部를 설치할 때라 기억합니다. 產業界의 先輩되시는 會員여러분의 지도하의 學會活動에서 工學이란 어떤 것이며 무엇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를 어렵듯이 알게 되었으며, 동시에 學會의 存立價値를 새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70년대초에 技術界 學會의 基本事務라 할 수 있는 技術調查研究事業을 활성화하고자 각 專門別 研究會를 설치할 때 電氣機器研究會의 설치에 參與하여 海雲臺에서 최초로 研究會를 開催하는데 일조를 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學會에는 작년에 설립한 江原支部와 電氣環境生體研究會를 합하여 12개 支部, 12개 研究會가 설치되어 學會活動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80년대 들어 와서 우리나라의 產業構造가 커지고 技術人口가 급격하게 膨脹하게 됨에 따라 學會活動도 擴散되고 活性化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量的인 膨脹에 만 치우친 나머지 質적으로는 散漫함을 가져 와서 學界는 學校만으로, 產業界는 產業體만으로 각각 學會活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學會活動의 本來의 趣旨에서 離脫해 가는 傾向이 짙어져서 결과적으로 產, 學, 研이 함께 參與하는 學會가 되지 못하여서 實質會員數도 증가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本人이 就任初에 產, 學, 研이 다 함께 參與하는 學會活動을

會員여러분께 呼訴하게 된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 입니다. 다행히 이 점에 깊이 共感하시는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呼應으로, 1991年度の 江原大學校에서의 夏季綜合學術大會에서는 學界 및 產業界에서 28 Session에 203편의 發表件數와 744명의 會員登錄 및 100여명의 가족참관이 있었으며, 1992年度の 巨濟島의 大宇造船과 巨濟專門大學에서의 夏季綜合學術大會에서는 45 Session에 346편의 發表件數와 922명의 會員登錄 및 250여명의 가족참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본 學會 學術委員會의 짜임새 있는 計劃과 準備를 위한 勞苦가 있었으며 開催地의 關係者여러분 및 特別會員社의 物心兩面의 協助가 있었음을 밝혀 두는 바이며 이 紙面을 빌려 그 勞苦와 協助에 대하여 거듭 심심한 謝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러한 成果의 바탕에는 우리 電氣學會의 産, 學, 研의 會員여러분이 다 함께 參與하는 學會活動의 重要性에 대하여 깊은 理解와 높은 認識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으며 이 점 本人이 가장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편으로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져 하는 것은 學會의 基本業務인 技術調查研究事業의 活性化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次世代에 있어서 先進工業國으로 발돋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既存 先進國들의 牽制와 技術移轉의 忌避로 그 前途가 밝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壁에 부딪쳐 있는 感 또한 없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들 自身이 우리들 나름대로의 技術開發을 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 동안 다양하고 많은 科學技術情報가 들어와 있고 專門家도 養成되어 있습니다. 다만 整理되고 體系化되어 있지 못하다는 脆弱點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一次的인 調查研究事業은 關聯 學會가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先進工業國의 관련학회인 IEEE, IEE, 日本電氣學會 등이 모두 이러한 調查研究事業에 重點을 두고 있음을 잘 아실 줄 아오며 저도 그점 항상 부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에서도 그 동안 調查委員會를 강화하여 力點事業으로 推進한 結果 超傳道應用技術分野를 위시한 6개 分野에서 “기술조사보고”를 發行하였으며 내년도로 이어지는 5개 分野의 技術調查事業의 推進 등 調查研究事業의 기틀을 마련 하였다는 데 대하여 커다란 보람을 느낍니다. 이러한 사업은 會員여러분의 끊임없는 協助와 관계임원의 勞苦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事業이며 항상 새로운 技術情報를 主體性을 가지고 집합으로서 알찬 結實을 갖게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本 學會내의 전력전자연구회가 주관한 '89 ISPE에 이어 한국/독일이 주축이 된 '92 International Symposium on Power Electronics의 國際學術會議의 開催는 뜻 깊은 行事였었다고 봅니다.

그 외의 學會事業에 盡力하여 주신 任員, 각 委員會 委員 및 特別會員 여러분의 熱과 誠을 다한 協助에 거듭 敬意를 표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우리 電氣學會가 우리나라의 技術產業革新에 더욱 이바지 할 수 있게끔 회원 여러분의 倍前의 聲援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평소 존경하는 李東昊 新任 會長을 중심으로 하는 任員陣여러분의 健闘를 바라오며, 다시 한번 本人이 在任하는 동안 베풀어 주신 恩惠에 감사드리오며 회원 여러분의 健勝과 大韓電氣學會의 무궁한 發展을 기원합니다.

1992年 壬申年 歲暮